

2023년도 국회직 한국사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②	①	②	⑤	④
6	7	8	9	10
④	①	①	④	⑤
11	12	13	14	15
③	④	③	⑤	②
16	17	18	19	20
①	③	⑤	④	①

<1번 추가 해설>

ㄹ.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으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청동기 시대 고조선에서의 일이다(범금 3조 중 하나)("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상에서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장면은, 'ㄱ과 ㄷ'이다.

1 - 신석기 시대에 볼 수 있는 장면

1. B.C. 5000년경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조개 껍질을 이용하여 장식을 만들고 있다.
- ㄴ. 고인돌 무덤을 만들기 위해 돌을 나르고 있다.
- ㄷ. 모양을 낸 진흙을 불에 구워 그릇을 만들고 있다.
- ㄹ.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②

B.C. 5000년경이면 신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참고로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신석기 시대는 B.C. 즉 기원전 8000년경(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약 4천 년 전부터 약 3천5백 년 전)에, 초기 철기 시대는 기원전 5세기경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ㄱ. 조개껍질[조개껍데기]을 이용하여 장식을 만든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부산 동삼동 유적과 인천 용진 소야도 등에서 조개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예술 활동을 보여준다. 또 신석기 시대에는 조개무지[패총]을 많이 남겼는데, 조개무지란 해안과 강변 등에 살던 신석기인들이 버린 조개, 굴 등의 껍데기가 쌓여서 무덤처럼 이루어진 유적이다.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고산리 유적, 양양 오산리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이 있다.

ㄴ. 고인돌 무덤을 만든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ㄷ. 모양을 낸 진흙을 불에 구워 그릇, 즉 토기를 만든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대표 토기)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눌러찍기무늬 토기: 손가락이나 동물뼈, 나뭇가지 등으로 무늬를 찍어 만든 토기이다. 압날문 토기라고도 하며, 한반도의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2 - 초기 국가, 동예

2.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나라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 산과 하천을 경계로 구역을 정하여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을 내도록 벌을 주니 이를 책화라고 한다. 대군장이 없고 예로부터 후, 읍군, 삼로가 하호를 다스렸다.
- 큰 나라 사이에서 시달리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고구려는 이 나라 사람 가운데 세력이 큰 사람을 사자(使者)로 삼아 다스리게 하고, 고구려의 대가로 하여금 조세 수취를 책임지도록 했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읍락사회의 공동체적 결속력이 강하였다.
- ② 해마다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거행하였다.
- ③ 천군이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었다.
- ④ 사회 분화가 미숙하여 천민층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⑤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주민들에게 조세를 걷었다.

정답> ①

위의 자료에 '산과 하천을 경계로 구역을 정하여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을 내도록 벌을 주니 이를 책화라고 한다. 대군장이 없고 예로부터 후, 읍군, 삼로가 하호를 다스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큰 나라 사이에서 시달리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복속*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구려는 이 나라 사람 가운데 세력이 큰 사람을 사자(使者)로 삼아 다스리게 하고, 고구려의 대가로 하여금 조세 수취를 책임지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읍락의 경계를 중시하여 책화(責禍)라는 풍습이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읍락 사회의 공동체적 결속력이 강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동예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2세기 후반경부터 사실상 고구려에게 복속되었다가 광개토 대왕 때(재위 391-412, 제19대) 고구려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동예의 남쪽 일부 지역은 신라에 편입).

오답 해설>

- ② 해마다 영고(迎鼓)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매년 12월).
- ③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천군(天君)이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제정 분리 사회).

<3쪽 4번 아래 추가 해설>

3 - 신라

3. 다음 내용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높은 데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楊山) 밑 나정(蘿井)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잠시 뒤 그곳을 다시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가 있었다. ... 그 알을 쪼개어 보니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가 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동천(東泉)에서 목욕시키니 몸에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조리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밝게 빛났다.

- ① 특산물로 단궁과 과하마 등이 유명하였다.
- ② 돌무지덧널무덤에 시신과 부장품을 매장하였다.
- ③ 전연의 침략을 받아 왕릉이 도굴되기도 하였다.
- ④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 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변한 지역에서 출현하였다.

정답> ②

'모두 높은 데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楊山) 밑 나정(蘿井)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잠시 뒤 그곳을 다시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 알을 쪼개어 보니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가 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동천(東泉)에서 목욕시키니 몸에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조리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밝게 빛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명한 신라의 박혁거세 설화임을 알 수 있다.

돌무지덧널무덤은 통일 이전 신라의 주된 무덤 양식이다.

오답 해설>

- ① 특산물로 단궁과 과하마 등이 유명하였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 ③ 전연 모용황(재위 337-348)의 침략을 받아 왕릉이 도굴되기도 한 나라는 고구려이다(342, 고국원왕 12). 고구려는 이때 수도가 함락되었는데, 고국원왕의 부친 무덤인 미천왕릉이 도굴되어 미천왕의 시신을 빼앗기고 왕모 주씨와 왕비가 납치되는 수모를 당하였다(이후 모두 되찾음). 전연은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나라로 중국 5호 16국 중의 하나이다(337-370).
- ④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 수도를 웅진(지금의 충남 공주)으로 옮긴 나라는 백제이다(475, 백제 문주왕 원년)('웅진 시대' 개막, 475~538).
- 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변한 지역에서 출현한 나라는 가야이다. 대략 3세기 중반 이후에 변한 지역 12개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가야 연맹체를 형성하면서 가야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삼국유사』에 근거).

4 - 백제 무왕

4. 다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듬해 경신(庚申)에는 승려 30명을 득도(得度)케 하고, 당시의 서울인 사비성에 왕흥사(王興寺)를 세우게 하여 겨우 그 기초를 세우다가 승하하였다. (가)이/가 왕위를 계승하여 아버지가 닦은 터에 건물을 세워 수십 년만에 완성했는데, 그 절 또한 미륵사(彌勒寺)라고도 불렀다. 산을 등지고 물에 임했으며 꽃나무가 수려하여 사시의 아름다움을 구비하였다.

- 『삼국유사』 -

< 보 기 >

- ㉠. 6세기 후반 백제 왕을 지냈다.
- ㉡.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하였다.
- ㉢. 신라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당나라와 일본과의 친선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부흥을 도모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⑤

'이듬해 경신(庚申)에는 승려 30명을 득도(得度)*케 하고, 당시의 서울인 사비성**에 왕흥사(王興寺)***를 세우게 하여 겨우 그 기초를 세우다가 승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이/가 왕위를 계승하여 아버지가 닦은 터에 건물을 세워 수십 년만에 완성했는데, 그 절 또한 미륵사(彌勒寺)라고도 불렀다. 산을 등지고 물에 임했으며 꽃나무가 수려하여 사시의 아름다움을 구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인물'은 백제의 제30대 왕인 무왕(재위 600-641)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부여가 아니라 (전북) 익산에 미륵사가 창건된 것은 백제 무왕 40년인 639년의 일이다. '미륵'이라는 용어 때문에 '미륵사'라는 명칭은 익산의 미륵사처럼 특정 지역의 특정 사찰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거나, '미륵'과 관계 있는 사찰이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사료처럼 보통 명사로 범칭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료 속 경신년은 600년으로 해석된다.

*득도(得度)는 첫째, 미혹의 세계를 넘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 둘째 '재가(在家)의 사람이 출가하여 승려가 됨'의 뜻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둘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백제가 사비성(지금의 충남 부여)을 서울로 삼은 시기를 이전의 '한성 시대', '웅진 시대'와 대비하여 '사비 시대'라 한다. 것은 백제의 제26대 왕인 성왕(재위 523-554)이 사비(지금의 부여)로 천도한 538년부터 백제가 멸망한 660년(의자왕 26, 제31대)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왕흥사는 백제 무왕 원년인 600년에 창건하기 시작하여 재위 35년인 634년에 완성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2007년 왕흥사지에서 발견된 '창왕[위덕왕] 청동사리함 명문'에 의거하면 창건 시기가 위덕왕 24년인 577년으로 나온다.

㉠. 백제 무왕은 6세기 후반이 아니라 7세기 전반에 백제 왕을 지냈다. |

㉡.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한 백제의 왕은 무령왕(재위 501-523, 제25대)이다.

㉢. 『삼국유사』의 '서동설화'에 따르면 백제 무왕의 비가 신라의 제26대 왕인 진평왕(재위 579-632)의 공주인 선화 공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2009년 초 미륵사지 석탑 심초에서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라기에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백제의 귀족 사택적덕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아무튼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표현 자체는 틀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당나라와 일본과의 친선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부흥을 도모한 백제의 왕은 무왕이다.

이상의 <보기>에서 옳은 설명은, '㉢과 ㉣'이다.

<2번 추가 해설>

④ 주어진 사료에도 나와 있듯이 노비**와 같은 천민층이 존재하였다. 참고로 사료에 '대군장이 없고, 한(漢) 이래로 후(侯)·읍군·삼로가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하호(下戶)란 주인에게 예속되어 생활하는 천민층이 아니라 읍락의 일반민을 가리키는 통칭이다. 물론 천민층과 마찬가지로 넓게 보면 피지배층에 속하였다.

**사료에서는 노비를 '생구(生口)'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생구란 "산 채로 사로잡힌 자", 즉 전쟁 노예를 가리킨다.

⑤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은 '군장 국가', '연맹 왕국',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초기 국가, 동예는 연맹 왕국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그 전 단계인 '군장 국가' 단계에 머물렀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주민들에게 조세를 걷는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 수준은 아니었다.

5 - 발해의 건국과 발전 과정

5. 발해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 관제로 당을 모방한 3성 6부를 두었다.
- ② 문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 국왕 대흠무'라 칭했다.
- ③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을 이끌고 나라를 세웠다.
- ④ 고왕은 당의 압력에 대항하여 산둥반도의 덩저우를 공격했다.
- ⑤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정답> ④

당국의 압력에 대항하여 산둥반도의 덩저우(지금의 산둥성 옌타이)에 수군을 보내 공격한 것은 발해 고왕 대조영(재위 698-719, 제1대)이 아니라 발해 무왕 대무예(재위 719-739, 제2대)이다(732, 무왕 14).

오답 해설>

- ① 발해는 중앙 관제로 당을 모방한 3성 6부(제)를 두었다. 하지만 명칭과 관장 업무 등에서는 독자적이었다.
- ② 발해 문왕 대흠무(재위 737-793, 제3대)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 '고려 국왕 대흠무'라고 칭하였으며, 일본 역시 발해의 왕을 '고려왕'으로 표현하였다(759, 문왕 23).
- ③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을 이끌고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운 것은 698년의 일이다.
- ⑤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지방 제도를 정비한 발해의 왕은 선왕 대인수(재위 818-830, 제10대)이다. 선왕 대에 이르러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이 확립되었으며,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전성기를 이루었다.

6 - 고려 성종이 실시한 정책

6. 다음 밑줄 친 '국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이래로 신이 알게 된 것은 모두 신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기까지 다섯 왕의 정치와 교화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경계로 삼을 만한 잘잘못을 기록하고, 시무책을 조목별로 나누어 국왕께 올립니다.

- ① 전지와 시지를 함께 주는 전시과를 처음 시행하였다.
- ② 거란의 침략으로 불타 없어진 실록을 다시 편찬하였다.
- ③ 과거 제도를 도입하여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 ④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 ⑤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이래로 신이 알게 된 것은 모두 신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제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기까지 다섯 왕의 정치와 교화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경계로 삼을 만한 잘잘못을 기록하고, 시무책을 조목별로 나누어 국왕께 올립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성종 원년인 982년에 성종이 '중앙관 5품 이상은 모두 봉사(封事)를 올려 현재 정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하라'는 명을 내리자 당시 정광 행선관어사 상주국(正匡行選官御事上柱國)의 관직으로 인사권을 담당하던 중견 관리였던 최승로(927~989)가 태조 이래 경종까지 고려 왕의 정치를 평가한 「오조치적평(五祖治績評)」과 「시무이십팔조(시무 28조)」로 구성된 상소문을 올렸다(성종 재위 981-997, 제6대).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지방관, 외관]를 파견한 것은 성종 2년인 983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전지와 시지를 함께 주는 전시과를 처음 시행한 것은 고려 경종 원년인 976년의 일이다(시정 전시과).
- ② 거란의 침략으로 불타 없어진 실록을 다시 편찬한 것은 현종 대(재위 1009-1031, 제8대)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종 4년인 1013년에 태조~목종까지의 '7대 실록'이 편찬되기 시작하여 덕종 3년인 1034년에 완성되었다. 『고려사』에는 '칠대사적기(七代事蹟記)'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 ③ 과거 제도를 도입하여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한 것은 고려 광종(재위 949-975, 제4대)이다. 광종 재위 7년인 956년에 과거제가 처음 실시되었다.
- ⑤ 『정계』와 『계백료서』를 편찬한 것은 고려 태조 19년인 936년의 일이다.

7 - 이자겸의 금 사대 요구 수용

7. 다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이때부터 별무반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 윤관이 임금에게 포로 346명과 말 96필, 소 300여 두를 바쳤다. 그리고 통태진 등 지방에 성을 쌓았는 바, 이것이 북계의 9성이다.

(나) 김윤후는 ... 몽골군이 이르자 처인성으로 난을 피하였는데, 몽골의 장수 살리타가 와서 성을 공격하므로 그를 사살하였다.

- 『고려사』 -

- ① 이자겸이 금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 ②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흥건적이 침입해 국왕이 안동까지 피난하였다.
- ④ 서희는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 ⑤ 삼별초가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대몽 항쟁을 전개하였다.

정답> ①

(가)에 '이때부터 별무반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윤관이 임금에게 포로 346명과 말 96필, 소 300여 두를 바쳤다. 그리고 통태진 등 지방에 성을 쌓았는 바, 이것이 북계의 9성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윤관(1040~1111)의 건의로 기병 중심의 부대로 별무반이 편성된 것은 고려 숙종 9년인 1104년의 일이다[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승병)으로 편성]. 그리고 별무반을 동원하여 여진을 몰아내고 북계 지역에 동북 9성을 쌓은 것은 예종 2년인 1107년의 일이다. (나)에는 '김윤후는 ... 몽골군이 이르자 처인성으로 난을 피하였는데, 몽골의 장수 살리타가 와서 성을 공격하므로 그를 사살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인 적장 살리타(?~1232)를 사살한 것은 몽골의 제2차 침입 시인 1232년(고종 19)의 일이다(처인성 전투).

문벌 귀족 이자겸(?~1126)이 금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고려 인종 4년인 1126년의 일이다[인종(재위 1122-1146), 제17대].

오답 해설>

- ②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고려의 제4대 왕인 광종 대(재위 949-975)이다[각 949(광종 즉위년)/960(광종 11)].
- ③ 흥건적이 침입해 국왕이 (경북) 안동(당시 '복주')까지 피란한 것은 공민왕 10년인 1361년의 일이다(흥건적의 제2차 침입). 참고로 흥건적의 제1차 침입은 공민왕 8년인 1359년에 있었다.
- ④ 문신 서희(942~998)가 거란의 적장 소손녕(?~996)과 협상하여 거란을 물러가게 했을 뿐 아니라 강동 6주까지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

<6쪽 9번 아래 추가 해설>

8 -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

8. 다음 주장에 근거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다.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따르고 나쁜 점은 바로 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임금이 가장 올바른 경지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 『조선경국전』 -

- ① 경연의 실시
- ② 군주제 타파
- ③ 직전법 실시
- ④ 호포제 시행
- ⑤ 6조 직계제 시행

정답> ①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따르고 나쁜 점은 바로 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임금이 가장 올바른 경지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출처가 삼봉 정도전(1342~1398)이 개인적으로 편찬하여 바친 조선 최초의 법전인 『조선경국전』이다(1394, 태조 3). 정도전은 조선의 개국 1등 공신으로,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장하였다.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에 근거한 정책으로, 주어진 선지 중에서는 경연(經筵)의 실시가 적절하다. 경연은 왕에게 유교 경전과 사서를 가르쳐 유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교재는 4서 5경과 역사 및 성리학 서적이었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관원이 이를 담당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와 군주제 타파는 전혀 상관이 없다.
- ③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1466, 세조 12).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 현상 때문에 취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관리들이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고자 관직에 있을 때 대토지를 차지함으로써 농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④ 호포제는 호(戶)를 단위로 군역을 징수하는 세금 제도를 가리킨다. 농민 장정뿐 아니라 양반에게까지 군역의 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양반불역론이라 하여 양반들은 군역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논의될 때마다 양반들의 저항이 거셌다. 그 결과 조선 시대에 거의 끝나가는 고종 8년인 187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행되었다.

<6쪽 9번 아래 추가 해설>

9 - 강화도 조약과 임오군란 사이에 있었던 사실

9. 다음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강화도 조약] → (가) → [임오군란]

- ① 종래의 5군영을 2명으로 개편하였다.
- ②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 ③ 개화정책 추진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 ④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에 보병사를 파견하였다.
- ⑤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하여 무기제조기술을 배우게 하였다.

정답> ④

'강화도 조약'과 '(가)', '임오군란'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강화도 조약, 즉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된 것은 조선 고종 13년인 1876년 2월의 일이다. 그리고 임오군란이 일어난 것은 고종 19년인 1882년 6월의 일이다.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미국에 보병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 (1883.7~1884.5)

*보병사: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을 대표로 한 보병사가 파견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4.5).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흥영식(1855~1884), 종사관 서광범(1859~1897) 등으로 구성된 보병사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른)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것이며, 미국 뉴욕에서 체스터 앨런 아서 미국 대통령(재임 1881~1885, 제21대)을 접견하였다.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하였다.

오답 해설>

①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 2명으로 개편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11월의 일이다.

②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8월의 일이다.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도원 김홍집(1842~1896)이 가져와 고종에게 복명하면서 바쳤다.

**『조선책략』: 청의 주일 참사관 황준헌(1848~1905)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청의 초대 주일 공사인 하여장(1838~1891)의 구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당시 청은 이리(伊犁: 중국 위구르·신장 지역) 문제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서자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다. 또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에 미국과 일본 등을 끌어들이면 미국, 일본 등이 중국 편에서 함께 간섭해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황준헌에게 『조선책략』을 작성하게 하였다(조선에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정책 권장).

③ 개화 정책 추진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⑤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하여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게 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9월의 일이다 (~1882.11).

***영선사는 중국의 선진 문물(신식 무기의 제조와 사용법)을 견학하고 미국과의 수교 문제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청에 파견된 사절단이다. 온건 개화파인 운양 김윤식(1835~1922)이 이끌었다. 이듬해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의 여파로 조기 귀국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기기창(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 설립되었다(1883.3).

<7번 추가 해설>

⑤ 삼별초가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대몽 항쟁을 전개한 것은 1270년대 전반의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려 원종 11년인 1270년 6월 조정의 개경 환도령에 반기를 들고 이후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몽골에 3년여 간 저항하였다(1270~1273). 배중손(?~1271)이 이끄는 삼별초가 (전남 진도의) 용장산성에서 항전하였고(진도 삼별초, 1270.6~1271.5). 배중손이 전사한 후에는 김통정(?~1273)이 삼별초를 이끌고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 항전하였다(제주도 삼별초, 1271.6~1273.2).

<8번 추가 해설>

⑤ 6조 직계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태종 14년인 1414년의 일이다. 이후 세종 때 폐지되었다가 세조 원년인 1455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6조 직계제는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다(반면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의 의정부 서사제와 연결).

10 - 양반

10. 다음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은/는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 또 조금만 공부를 하면 크게는 문과에 오르고 작아도 진사 벼슬은 할 수 있다. 문과의 흥패는 길이 2자 남짓한 것이지만 백물이 구부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인 것이다. ... 또한 마을 사람들을 불러내어 자기 밭의 김을 먼저 매게 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코로 잣물을 먹인다. 또한 상투를 붙들어 매고 수염을 자르는 등 갖은 형벌을 가하여도 감히 원망할 수 없다.

< 보 기 >

- ㉠. 법적으로 규정된 신분이었다.
- ㉡. 전현직 문반 관직자들로 제한되었다.
- ㉢. 유향소를 통해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 향안(鄕案) 입록을 두고 향촌 사회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⑤

'(가)은/는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 또 조금만 공부를 하면 크게는 문과에 오르고 작아도 진사 벼슬은 할 수 있다. 문과의 흥패는 길이 2자 남짓한 것이지만 백물이 구부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인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또한 마을 사람들을 불러내어 자기 밭의 김을 먼저 매게 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코로 잣물을 먹인다. 또한 상투를 붙들어 매고 수염을 자르는 등 갖은 형벌을 가하여도 감히 원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 시대의 최고 신분층인 (문무) 양반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 조선 시대에 법적으로 규정된 신분은 양천제(良賤制)이다. 갑오개혁(1894) 이전까지 조선 사회를 지탱한 기본적인 신분 제도였다(『경국대전』 규정). 모든 백성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한 것이다(고려 시대에는 덜 뚜렷). 그리하여 천민이 아닌 자는 모두 양인화하여 이들에게 벼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도 부과하였다. 하지만 16

세기 이후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 계층이 형성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층인 양반과 전체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민이 주를 이루는 반상제(班常制)로 변화하였다(신분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 심화).

㉡. 양반에는 (전현직) 문무 양반이 있다(문반, 무반). 따라서 전현직 문반 관직자들로 제한된 것은 아니다.

㉢. 유향소[향청]는 악질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품관들이 조직한 자치 기구로, 향청이라고도 하였다. 지방의 품관들은 곧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인 재지사족을 가리킨다.

㉣. 향안(鄕案) 입록을 두고 향촌 사회에서 서로 다투기도 한 이들은 조선 후기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한 서얼·부농층, 즉 신향들(신분으로는 중인과 상민에 해당)과 전통적인 양반인 재지사족들인 구향들이다(향전).

이와 같이 <보기>에서 양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 ㉣'이다.

11 - 형평 운동

11. 다음 사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근본 강령이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본 사의 큰 뜻이다.

- ① 서열 차별이 발단이 되었다.
- ② 근우회 결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③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④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 ⑤ 소년 운동으로 확대되어 조선 소년군이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③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근본 강령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본 사의 큰 뜻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조선 형평사가 경남 진주 [진주 청년 회관]에서 조직될 당시 발표한 창립 선언문(일부)임을 알 수 있다(1923.4.25)(조선 형평사 발기 총회). 형평사를 창립하여 형평 운동을 펼친 이들은 80여 명의 백정 출신들과 사회 운동가들이었다*.

*일본에서 유학까지 마친 지식인이었지만 백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한 장지필과 자신이 백정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입학이 거부당한 이학찬 등이 형평사 설립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에 동조했던 양반 출신 지식인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등이 단체 설립에 참여하였다.

형평 운동은 진주에서 시작되어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오답 해설>

① 서열 차별이 발단이 된 사회 운동은 통청 운동이다. 즉 조선 후기에 서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통청(通淸) 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1851년(철종 2) 신해허통으로 서열들에 대한 관직 진출상의 법적 제한이 소멸하였다.

**통청 운동: 서열, 기술직 종인과 같은 중간 계층이 상위 관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한 신분 차별 폐지 운동이다

② 근우회가 신간회의 자매단체의 성격을 띄며 결성된 것은 1927년 5월의 일이다(1927.5.11). 근우회는 항일 구국 운동과 여성 지위 향상 운동 단체이다.

④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위하여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된 것은 1922년 11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1923년 3월에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 발기[창립] 총회가 열렸다(1923.3.29).

⑤ 소년 운동으로 확대되어 조선 소년군이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 현 중앙고에서) 창설된 것은 1922년 10월의 일이다(1922.10.5)(한국스카우트운동의 기원). 창립 첫해 8명으로 시작된 조선 소년군은 4년 만에 전국 학생 1만여 명이 참여하는 학생 운동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12 - 시대별 불교

12. 시대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대 삼국 중 백제가 가장 먼저 수용했다.
- ② 고구려 제가회의와 신라 화백회의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 ③ 신라 원효는 부석사에서 화엄 사상을 설파하며 화엄종을 열었다.
- ④ 조선 초 승과 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승려들에게 도첩을 발급했다.
- ⑤ 고려 광종은 균여를 통해 교종과 선종을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했다.

정답> ④

승과 시험 제도가 실시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이때 시행된 과거제는 문과·잡과·승과·무과*로 나누어졌다. 이후 승과는 조선 초에도 계승되어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다가 연산군 대(재위 1494-1506, 제10대)에 폐지되었다(1504, 연산군 10). 명종 대(재위 1545-1567, 제13대)에 문정 왕후(1501~1561)의 호불 정책에 따라 잠시 복구되어 실시된 적이 있었으나 문정 왕후 사후 재차 폐지되었다[각 1552(명종 7)/1566(명종 21)]. 그리고 국가에서 승려의 신분을 인정해주는 증명서인 도첩(度牒)을 처음 시행한 것은 고려 충숙왕 12년인 1325년의 일이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 말의 도첩제를 한층 강화하였는데, 이는 승려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무과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대(재위 1389-1392, 제34대)에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사실상 무과는 없었던 것과 같다.

오답 해설>

①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한 것은 소수림왕 2년인 372년의 일이고, 백제가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한 것은 침류왕 원년인 384년의 일이다(동진의 마라난타). 또 신라가 이차돈(506~527)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것은 법흥왕 14년인 527년**의 일이다. 따라서 고대 삼국 중 불교를 가장 먼저 수용한 국가는 고구려이다.

**528년(법흥왕 15) 혹은 529년(법흥왕 16)에 공인되었다는 설 있음.

② 고구려의 제가 회의와 신라 화백 회의는 일종의 귀족 회의이다. 불교와는 상관없다.

③ 경북 영주에서 부석사***를 세워 화엄 사상을 설파하며 화엄종을 연 인물은 신라의 화쟁국사 원효(617~686)가 아니라 (해동화엄시조)원교국사 의상(625~702)이다(676, 문무왕 16).

***부석사 창건 설화: 당에 유학했던 대사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그를 사모했던 선묘라는 여인이 용으로 변하여 귀국길을 도왔다. 신라에 돌아온 대사는 불법을 전파하는 중 자신이 원하는 절을 찾았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다른 종파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때 선묘룡이 나타나 공중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신하여 절의 지붕 위에서 떨어질 듯 말 듯 하자 많은 무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절을 '돌이 공중에 뗏다'는 의미의 부석사(浮石寺)로 불렀다.

⑤ 고려 광종(재위 949-975, 제4대)은 원통대사 균여(923~973)를 통해 (교종과 선종이 아닌) 교종(만)을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균여는 고려 광종 14년인 963년에 귀법사의 초대 주지가 되었으며 이 직후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광종 대인 963년과 967년 사이에 지음). 한편 광종은 중국에 승려들을 보내 법안종(法眼宗)을 수용하였는데 법안종을 들여와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13 - 성호 이익과 연암 박지원

13.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리고 전(田) 몇 부(負)를 한정하여 1호(戶)의 영업전(永業田)으로 삼는다. ... 가난한 백성이 만약 현재 남아 있는 토지를 가지고 항구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토대로 삼는다면 어찌 조금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 (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우십시오. ... 토지 소유를 제한하면 겸병한 자가 없어지고, 겸병한 자가 없어지면 산업이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이 균등하게 된 후에야 백성이 모두 안정되어 각기 제 토지를 경작하게 되고, 근면한 사람과 나태한 사람의 구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 ① (가)를 주장한 인물은 천주교를 수용했다.
- ② (가)를 주장한 인물은 유배지에서 실학을 집대성했다.
- ③ (나)를 주장한 인물은 중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
- ④ (나)를 주장한 인물은 문답 형식의 과학사상서를 저술했다.
- ⑤ (가)와 (나)를 주장한 두 인물은 서로 교류하면서 개혁안을 발전시켰다.

정답> ③

(가)에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리고 전(田) 몇 부(負)를 한정하여 1호(戶)의 영업전(永業田)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난한 백성이 만약 현재 남아 있는 토지를 가지고 항구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토대로 삼는다면 어찌 조금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성호 이익(1681~1763)이 『곽우록』*에서 제시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제(限田論)임을 알 수 있다(저술 연대 미상).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익은 자영농의 몰락을 막기 위하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자 매매 불가능한 영업전을 설정(할당)하였다(일종의 '토지 소유의 하한선' 제시).

*곽우록의 뜻: 재야에 있는 평민은 국가의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지만, 국가 정책이 잘못되면 백성이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어 분수에 넘치는 안을 제시하는 '천민의 걱정'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나)에는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우십시오. ... 토지 소유를 제한하면 겸병한 자가 없어지고, 겸병한 자가 없어지면 산업이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산업이 균등하게 된 후에야 백성이 모두 안정되어 각기 제 토지를 경작하게 되고, 근면한 사람과 나태한 사람의 구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연암 박지원(1737~1805)이 제시한 한전론적 토지 개혁안[한전론]임을 알 수 있다(출처,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

연암 박 지원은 1780년(정조 4)에 청 건륭제의 칠순연을 축하하기 위해 사행하는 삼종형을 수행하여 청 고종의 피서지인 열하를 여행하고, 돌아온 여정을 소상하게 기록한 연행일기를 남겼다.

오답 해설>

- ① 성호 이익은 서학은 수용하였으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경계하였다.
- ② 유배지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 전남 강진의 다산 초당이 대표적인 유배지이다.
- ④ 문답 형식의 과학사상서인 『의산문답』을 저술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1766, 영조 42). 홍대용은 이 책에서 지구구형설과 함께 지전설, 무한우주론 등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⑤ 성호 이익과 연암 박 지원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다.

14 - 박정희 정부의 정책

14.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권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

다섯째,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 ① 한일회담 타결을 추진했다.
- ②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했다.
- ③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권력 기반을 마련했다.
- ④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다수의 폭력배를 검거했다.
- 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매체를 통폐합했다.

정답> ⑤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와 '다섯째, 민족의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 정변이 발생한 직후 조직된 군사 혁명 위원회에서 발표된 6개항의 '혁명 공약'임을 알 수 있다(5월 19일 군사 혁명 위원회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개칭).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줄여서 '국보위')가 설치되고 언론 매체를 통폐합한 것은 1980년 5월과 11월의 일이다. 즉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된 직후인 1980년 5월 31일에 국보위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11월 14일에 신문과 통신이 통폐합되고 방송이 공영화 조치가 취해졌다. 국보위 설치는 최규하 정부(1979.12.21-1980.8.16), 언론통폐합은 전두환 정부(1980.8.27-1988.2.24) 시기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한일 회담 타결을 추진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이다. 1962년 11월 김종필·오히라의 비밀 회담 결과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도출되었고, 1965년 6월 한·일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됨으로써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②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추진된 것은 사실상의 박정희 정부 시기(군사 정부 시기)인 1962년 1월의 일이다(1962.1.13)(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행).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이후 1997년 폐지될 때까지 총 7차례 이루어졌다.

③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권력 기반을 마련한 것은 1961년 6월 10일의 일이다(법률 제619호).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직속으로 발족된 정보 및 수사 기관이다. 약칭 '중정'이라고 불렸다.

④ 5·16 군사 정변 직후 박정희 군사 정부는 '사회정화'와 '구악일소'를 명분으로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 다수의 (정치)폭력배를 검거하여 사형, 장기징역형 또는 강제 노력에 동원하였다(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포된 200여 명의 정치 깡패를 1961년 5월 21일 속박당한 채 팻말을 목에 걸게 하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참고로 전두환 정부 초기인 1980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로 사회정화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을 명목으로 사회정화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다.

15 - 조선 정조 대의 사실

15. 다음 밑줄 친 '왕'의 재위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대사성 김방행에게 이르기를, "성균관 시험의 시험지 중에 만일 조금이라도 패관잡기에 관련되는 답이 있으면 비록 전편이 주옥같은지라도 하고(下考)로 처리하고 이어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여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조금도 용서가 없어야 할 것이다. 내일 승보시(陞補試)를 보일 때 여러 선비를 모아두고 직접 이 뜻을 알려주어 실효가 있게 하라. ... 일전에 남공철의 대책(對策) 중에도 소품(小品)을 인용한 몇 구절이 있었다. ... 오늘 이 하교가 있었음을 듣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 전에는 그가 비록 대궐에 들더라도 감히 경연에 오르는 못할 것이다. 남공철의 지체교 직함을 우선 때도록 하라. ... 정관(政官)으로 하여금 문신 중에서 그런 문체를 쓰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 다시는 교수(教授)의 후보자로 추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① 『만기요람』이 편찬되었다.
- ②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 ③ 『경국대전』이 편찬되었다.
- ④ 『국조오례의』가 편찬되었다.
- ⑤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정답 > ②

'왕이 대사성 김방행에게 이르기를, 성균관 시험의 시험지 중에 만일 조금이라도 패관잡기에 관련되는 답이 있으면 비록 전편이 주옥같은지라도 하고(下考)로 처리하고 이어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여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조금도 용서가 없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내일 승보시(陞補試)를 보일 때 여러 선비를 모아두고 직접 이 뜻을 알려주어 실효가 있게 하라. ... 일전에 남공철의 대책(對策) 중에도 소품(小品)을 인용한 몇 구절이 있었다. ... 오늘 이 하교가 있었음을 듣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 전에는 그가 비록 대궐에 들더라도 감히 경연에 오르는 못할 것이다. 남공철의 지체교 직함을 우선 때도록 하라. ... 정관(政官)으로 하여금 문신 중에서 그런 문체를 쓰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 다시는 교수(教授)의 후보자로 추천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정조 16년인 1792년 10월 청에 사신으로 가는 동지정사 박종악과 대사성 김방행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패관소기 및 일체의 중국 서적을 사오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문제 반정'(문제 순정, 문제 파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조(재위 1776-1800, 제22대)는 당시 유행하던 패관잡기체의 문체를 불순하다고 배격하고 이를 한문 문체를 개혁한 순정고문(醇正古文)으로 환원시키려는 정책을 펼쳤다. '반정'이란 말 대신 당시에는 '비변문체(丕變文體)', '문체지교정(文體之矯正)', '귀정(歸正)'이란 용어가 사용

되었다. 문제 반정 정책은 노론 벽파를 중심으로 한 공서파의 공격으로부터 남인 시파를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된 여론 조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반면 이와 같은 정조의 문제 반정으로 말미암아 18세기의 문예 운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대전통편』이 편찬된 것은 정조 9년인 178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 ① 『만기요람』이 편찬된 것은 순조 8년인 1808년의 일이다. 심상규와 서영보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하였는데, 조선 후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사항을 모아놓은 책이다.
-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편찬된 것은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6전 체제 완성).
- ④ 『국조오례의』가 편찬된 것은 성종 5년인 1474년의 일이다.
- ⑤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것은 성종 12년인 1481년의 일이다.

16 - 을미의병

16. 다음 밑줄 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격문을 띄워 팔도의 여러 고을에 고하노라. ...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 베듯이 베어 버리니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이에 감히 의병을 일으키고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는 공경에서 아래로는 서민에까지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하지 않으랴.

- ① 위정 척사론을 계승한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 ② 진위대의 해산 군인과 합세하여 전력을 강화하였다.
- ③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보내는 등 외교 활동을 벌였다.
- ④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에 자극받아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⑤ 다른 지방의 의병과 힘을 합쳐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였다.

정답> ①

'격문을 띄워 팔도의 여러 고을에 고하노라. ...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 베듯이 베어 버리니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감히 의병을 일으키고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는 공경에서 아래로는 서민에까지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하지 않으랴'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복수보형(復讐保形)의 기치를 내건 의암 유인석(1842~1915)의 창의문으로,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을 계기로 일어난 을미의병 때의 일이다(1895.12).

을사의병은 위정 척사론을 계승한 유생들이 주도하였다(1895~1896). 이듬해인 1896년에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자 대부분 해산하였다.

오답 해설>

② 진위대의 해산 군인과 합세하여 전력을 강화한 의병은 1907년 7월 고종의 퇴위와 8월 군대 해산(중앙군인시위대와 지방군인 진위대 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정미의병이다.

③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보내는 등 외교 활동을 벌인 의병은 13도 창의군과 같은 정미의병이다. 13도 창의군은 전국의 정미의병들이 경기도 양주에 모인 1907년 12월에 조직되었다(1907.12.6). 이때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해산된 군인 3,000명이 포함되었다(전 병력을 24개 진으로 하는 12도 창의대진소로 편성). 13도 창의군은 각국 영사관에 자신들을(국제법상의) 교전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④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1864~1921)이 쓴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에 자극받아 활동을 전개한 의병은 을사의병이다(1905.11.20). 논설 3일 전에 강요된 을사늑약에는 러일 전쟁 승리 이후 기고만장해진 일제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등 대한 제국을 사

17 -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

17. 다음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6월 민주 항쟁
 ㄴ. 농지개혁법 공포
 ㄷ. 금융실명제 실시
 ㄹ. 7.4 남북공동성명
 ㅁ.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 ① ㄴ→ㄱ→ㄷ→ㄹ→ㅁ
- ② ㄴ→ㄷ→ㄹ→ㄱ→ㅁ
- ③ ㄴ→ㄹ→ㄱ→ㄷ→ㅁ
- ④ ㄹ→ㄴ→ㄷ→ㅁ→ㄱ
- ⑤ ㄹ→ㅁ→ㄱ→ㄴ→ㄷ

정답> ③

ㄱ.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6월의 일이다(1987.6.10~6.29).

ㄴ.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6월의 일이고, 공포된 것은 이듬해인 1950년 3월의 일이다.

ㄷ.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발표된 다음날인 1993년 8월 13일부터 전격 실시되었다.

ㄹ.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월의 일이다(1972.7.4).

ㅁ.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13).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이상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ㄴ-ㄹ-ㄱ-ㅁ-ㄷ'이 된다.

<16번 추가 해설>

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는 내용이 규정되었다(1905.11.17).

⑤ 다른 지방의 의병과 힘을 합쳐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한 의병은 정미의병인 13도 창의군이다. 13도 창의군은 이듬해인 1908년 1월에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부근, 즉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했다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아 후퇴).

18 - 조선 후기의 역사가 및 역사서

18. 다음 역사가 및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고대사의 지명을 새롭게 고증하였다.
- ② 홍여하는 『휘찬여사』에서 기자-마한-신라를 정통국가로 내세웠다.
- ③ 조정은 『동사보유』를 저술하면서 옛 기록의 신화와 전설 등을 다수 수록하였다.
- ④ 한치윤은 『해동역사』를 저술하면서 500여 종의 중국, 일본 자료를 참고하였다.
- ⑤ 이종회는 「동사」에서 의병 경험을 살려 역대 애국 명장들의 활약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정답 > ⑤

수산 이종회(1731~1797)는 소론이자 양명학자로, 정통 주자학의 폐쇄성을 비판하였다. 역사서 『동사』는 고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서술한 기전체 역사서이다(1803, 손조 3). 고조선과 삼한, 그리고 부여·고구려 계통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었는데, 부여·고구려·백제·예맥·옥저·비류 등을 모두 단군의 후예로 간주하고, 발해 또한 고구려의 후계자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만주에 세웠던 나라들이 본래 우리의 강토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의병 경험을 살려 역대 애국 명장들의 활약을 비중 있게 다룬 역사서는 북인인 죽유 오운(1540~1617)이 쓴 『동사찬요』이다(1609, 광해군 원년). 『동사찬요』는 신라 시조로부터 고려 멸망까지의 사적을 『동국통감』, 『삼국사기』, 『고려사』 등을 참고로 하여 요약한 신라와 고려의 역사서이다. 특히 열전에서 임진왜란 때 경상도에서 의병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역대 애국 명장의 활약을 드러내고 있다. 기자조선을 높였으며, 박상(1474~1530)의 『동국사략』을 따라 신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구암 한백겸(1552~1615)은 한국 지리에 관한 사항을 여러 고서에서 뽑아 『동국지리지』를 엮었다(1615년, 광해군 7). 문헌 고증과 답사의 방법으로 고대사의 지명을 새롭게 고증한 역사지리책이다. 고구려의 발상지가 만주 지방이라는 것을 처음 고증하였고, 삼한의 위치도 고증하였다.

② 남인인 목재 홍여하(1620~1674)가 쓴 『휘찬여사』는 기전체(주자의 강목법을 가미한 기전체)로 쓴 고려의 시대사이다(1639년(인조 17) 범례와 초고 완성, 1659년경(효종 10) 완성, 간행은 홍여하 타계 후 100년 후). 『휘찬고려사』라고도 한다. 대체로 『고려사』를 간추린 내용이나, 누락된 것도 보충하고 있다. 서인인 시남 유계(1607~1664)의 『여사제강』이 호란 후 벌호(伐胡)[북벌] 즉 반청 운동을 주도하던 서인의 정치 노선을 반영하는 역사서(1667, 현종 8)라면 홍여하의 『휘찬여사』는 그와 반대되는 시각에서 씌어졌다. 따라서 서인의 군왕지이론에 입각한 대신 주도의 권력 구조를 반대하고 군신지은의 새로운 군신 관계를 통한 왕권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벌호에 따른 군비 강화와 그로 인한 부세의 부담 증대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는데(영남 남인의 입장), 이 점은 홍여하의 또 다른 역사서인 『동국통감제강』에 훨씬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1672, 현종 13). 조선 초기의 『동국통감』을 주자의 강목법에 의거해 재정리한 것). 『동국통감제강』에서 홍여하는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다. 『동국통감』을 주자의 강목법에 따라 고쳐 엮은 책으로, 기자 이후 삼국 시대까지를 취급하였다(편년체이자 강목체*).

*강목체: 역사를 연·월·일순에 따라 강과 목으로 기록한다. 우리나라에서 강목체 역사 서술은 성리학이 발전한 17세기 이후 나타났으며,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 안정복의 『동사강목』 등이 대표적이다.

③ 한수 조정(1551~1629)이 쓴 『동사보유』는 단군 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이다(1646(인조 24) 간행). 고기(古記)에 실린 신화와 설화들을 많이 수록하였다.

④ 옥유당 한치윤(1765~1814)의 『해동역사』는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1814, 순조 14).

19 - 고려 인종 대의 사실

19. 다음 밑줄 친 '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왕에게 아뢰기를 “개경의 지세(地勢)가 쇠퇴하였으므로 하늘이 재앙을 내려 궁궐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주 서경으로 행차하여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맞이하여 무궁한 큰 업적을 이룩하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여러 일관(日官)에게 물으니 모두 다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었다.
-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 ③ 압록강과 도련포에 걸쳐 천리장성을 쌓았다.
- ④ 김부식으로 하여금 『삼국사기』를 편찬토록 하였다.
- ⑤ 취민유도 원칙을 내세워 백성에 대한 과도한 수취를 금했다.

⑤ 취민유도 원칙을 내세워 백성에 대한 과도한 수취를 금한 것은 고려 태조 초의 일이다(918년 고려 건국 직후). 취민유도(取民有道)란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유교적 민본 이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수취 체제 개선을 통한 민심 안정을 위하여 이와 같은 조세 정책을 취하였다. 기록에는 전세의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둔 것으로 나온다(차후 광종 즉위년인 949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세를 마을 단위로 거두어들이는 주현공부법 도입).

정답> ④

'또 왕에게 아뢰기를 개경의 지세(地勢)가 쇠퇴하였으므로 하늘이 재앙을 내려 궁궐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주 서경으로 행차하여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맞이하여 무궁한 큰 업적을 이룩하소서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왕이 여러 일관(日官)에게 물으니 모두 다 아닙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인종 대(재위 1122-1146, 제17대)에 일어난 묘청(?~1135)의 서경 천도 운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135, 고려 인종 13).

김부식(1075~1151)으로 하여금 『삼국사기』를 편찬토록 한 '왕'이 곧 인종이다(1145, 고려 인종 23).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전국을 5도와 경기, 양계로 크게 나눈 것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의 일이다.
-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하고 친원파를 숙청한 것은 고려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원 간섭기*인 충렬왕 6년인 1280년에 정동행성 처음 설치).
*원 간섭기: '1259~1356(년)'으로 보는 설, '1270~1356(년)'으로 보는 설, '1273~1356(년)'으로 보는 설 등이 있다.
- ③ 압록강과 도련포에 걸쳐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1033년(덕종 2)에서 1044년(정종 10) 사이의 일이다.

20 - 진보당과 죽산 조봉암

20. 다음 강령을 발표한 정당·정치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우리는 원자력 혁명이 재래할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대응하여 사상과 제도의 선구적 창도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의 달성을 기한다.
2. 우리는 공산 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혁신 정치의 실현을 기한다.
- ...
5. 우리는 교육체계를 혁신하여 점진적으로 국가보장제를 수립하고, 민족적 새 문화의 창조로써 세계 문화에 기여를 기한다.

< 보 기 >

- ㄱ. 대중의 자각과 단결을 강조했다.
- ㄴ.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을 주장했다.
- ㄷ. 민생 안정을 내세워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제정했다.
- ㄹ.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대안으로 일민주의를 제시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①

'1. 우리는 원자력 혁명이 재래할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대응하여 사상과 제도의 선구적 창도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의 달성을 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 우리는 공산 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혁신 정치의 실현을 기한다'와 '5. 우리는 교육 체계를 혁신하여 점진적으로 국가 보장제를 수립하고, 민족적 새 문화의 창조로써 세계 문화에 기여를 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혁신 정치'라는 용어에서 주어진 자료는 죽산 조봉암(1898~1959)의 주도로 1956년 11월에 창당된 진보당의 강령임을 짐작할 수 있다(1956.11.10)

ㄱ. 1955년 10월 진보당 결성 제1차 추진 준비 위원회가 개최되고, 같은 해 12월에 조봉암, 서상일, 박기출, 이동화, 김성숙(金成濤), 박용희, 신숙, 신백우, 양운산, 장지필, 정구삼, 정인태 등 12명의 발기인 명의로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를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 정치, 자본가적 특권 경제를 쇄신하여 진정한 민주 책임 정치와 대중 본위의 균형있는 경제 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하고 국민 대중의 토대 위에서 선 신당을 발기하고자 한다."는 '진보당 발기 취지문'을 발표하였다.

ㄴ. 진보당과 당수 조봉암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과 노선과는 다른 '제3의 길'을 표명하면서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과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을 구실로 간첩 혐의를 씌워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당수 조봉암을 처형하였다(진보당이 해체된 것은 1958년 2월, 당수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59년 7월).

ㄷ.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민생 안정을 내세워 『농어촌 고리채정비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61년 6월의 일이다(1961.6.10). 이는 군사 정부가 농어촌 [농가]의 고리대를 억제하여 민심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농촌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ㄹ.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대안으로 일민주의(一民主義)를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4월의 일이다. 당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맞서는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내세운 이념('일민주의 정신과 민족 운동'이라는 제목의 담화 발표)으로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1902~1999)이 이를 체계화하였다.

이상의 <보기>에서 진보당과 조봉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 이 상 -